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제품리뷰

경제의 눈

문화 이야기

당신은 알파걸인가 평범걸인가



최윤희

요즘 새로운 키워드가 뜨고 있다. 알파걸(alpha girls)~. 새로운 슈퍼 파워 계층의 탄생이다.

알파걸은 공부와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방면에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여성을 일컫는다.

이 단어는 미국 하버드대 앤 킨들런(Kindlon·아동심리학) 교수가 출간한 같은 이름의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등, 최고를 뜻하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 '알파'(α)를 사용했다.

이것은 어쩌면 시몬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이미 예고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선언한 바 있다. '여성들에게 책임을 맡겨라! 머지않아 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 평등에 완벽하게 도달할 것이다.'

이제 세상의 중심에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층'인 '알파걸'이 등장했다. 알파걸과 평범걸은 가치관부터 다르다. 평범걸은 복종, 겸손, 자기희생 등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각한다. 나는 알파걸의 특징을 5가지로 압축해본다. 첫째, 알파걸은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알파걸의 애창곡은 마이 웨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눈빛엔 언제나 자신감이 뽐뽐하다.

둘째, 여성의 특성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것을 풀가동한다. 알파걸은 우먼이 아니라 휴먼이다.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고 남성들과의 경쟁을 즐긴다. 셋째,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다. 사소한 것에도 잘 빠지고 획~ 돌아서지 않는다. 위기상황에서도 cool하게 이성적으로 처리한다. 넷째, 인생을 즐긴다. 스티븐 서스펜스를 즐긴다. 남자와 동등하게 위험한 스포츠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알파걸들의 인생은 거침없이 하이킥~ 번지점프처럼 짜릿하다. 다섯째, 자기인생에 태극기를 꽂고 산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자기인생을 확실하게 독립국가로 선언하고 태극기를 꽂는다. 그 태극기를 필러필러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당당하게 산다. 대표적인 알파걸 내 후배 박정화는 그동안 터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쌍용 무쏘를 타고 다녔다.

자신을 위축시키고 인생을 '스몰 사이즈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살짝 호전적이고 배타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알파걸들은 여권주의자가 아닌 평등주의자인 것이다.

그래서 알파걸들은 총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알파걸들은 가스라이징과 미서기 뿐 아니라 뺨치, 컴퓨터같은 전기제품도 능숙하게 다룬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이미 세상은 알파걸들이 '집수'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중고등학교의 전교 회장은 거의 다 여학생들이었다. 아더 그것 뿐인가?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여성 총학생회장이 나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신기한 뉴스가 아니다.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수석합격도 거의 여성들이다.

나는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 태극기를 꽂아라! 독립국가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라!

<행복디자이너>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재훈

70세 할머니가 다리를 절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다.

무릎 방사선 사진을 보니 관절이 완전히 닳아져 인공 관절이 아니고서는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상태를 설명하고 인공 관절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인공 관절은 하지 않겠다고 그냥 약이나 좀 달라고 했다. 재차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수술을 거절했다.

무릎 인공 관절의 올바른 이해

사진을 찍어보니 퇴행성 관절염이었다. 관절 간격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아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연골 재생술과 함께 절골술(뼈를 잘라 배열을 바꾸어 좁은 뼈 체중이 관절염이 있는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은 인공 관절에 대해 불신을, 또 다른 사람은 확신을 갖는데 과연 누가 맞는 것인가. 결론은 둘 다 왜곡된 시각에서 인공 관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 관절은 정상 관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85~95% 정도, 평균 90% 정도의 기능을 갖는다. 일상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대단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소개한 환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수술로 인식하고 있을까. 영증이 생겼거나 수술이 잘못되면 경우에 따라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 관절 후에 계속 아프

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돈부터에서부터 대퇴부, 하퇴부, 발까지 당기면서 아파서 못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허리에서의 신경 압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릎 수술을 하고도 안 좋아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영증 시는 환자가 그런 경우였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환자로 곡해하고 있는 것은 치과 의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일부이고 젊은 사람에서는 조기에 인공 관절을 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가능한 다른 방법의 치료법을 먼저 찾아보고 도저히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인공 관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릎 인공 관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택으로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 삶의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

<동아병원 정형외과 원장>

기고



장택군

해양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순간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대형 사고가 크게 줄거나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러브 스토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3년 10월 10일 부산 위도 앞 해상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 192명이 사망하는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12일 중국 댜오항을 출항, 한국으로 돌아오던 벌크선 '골든로즈호'의 침몰로 승조원(16명) 전원이 사망했다. 우리에게 새삼 해난(海難)의 처절함과 참혹성을 일깨우게 하는 사건이다. 이같은 대형 해난사고들을 되짚어 보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 안타깝다.

때마침 '꿈의 공전'이라는 4만 톤급 초호화 여객선도 선주의 교만과 선장의 방심과 나태한 당직 선원들 앞에서 한낱 쇠틈머리에 불과했고 안전이 취약한 도서지역에서 운항관리자도 없이 육지를 오가던 서해훼리호 사고는 정원을

불법간판들에 점령당한 건물들 정비 시급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조그만 꽃집을 했다. 최근에 여유가 좀 생겨 회사와 관공서가 있는 시내 인근에 가서 꽃집을 좀 크게 하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이전하게 됐다. 하지만 꽃집 개업을 앞두고 간판을 달려 다 주변 상가들과 마찰이 생겼다. 꽃집 뿐 아니라 바로 옆 모퉁이에 하나, 모두 두 개의 간판을 달고자 했는데 이미 다른 상가들이 전부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둘러보니 바로 옆 미용실 간판이 4개, 문구 도매상과 휴대전화 대리점은 큰 간판만 3개씩 붙어있길래 우선 미용실이 하나만 떼고 내가 하나 더 떼달수 없냐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문구도매상과 휴대전화 대

리점도 마찬가지였다. 두개만 달자는 우리쪽과 큰간판을 서너개씩 달고 있는 기존 상가들과 다름이 생기니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우리는 간판 하나만 달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많은 불법간판들에 의해 시내 건물들이 완전히 점령당했다. 4층 높이에 큼지막하게 걸린 가로형 간판, 창문 크기 만한 큰 글자에 그렸도 모자라 아예 창문을 막아버린 간판, 바다에 거의 닿을 정도인 돌출간판과 단편 셔터를 문으로 활용한 간판들. 불법 간판이라고 먼저 달기만 하면 된다. 이는 식이 되면 관라하지 않는다.

리점도 마찬가지였다. 두개만 달자는 우리쪽과 큰간판을 서너개씩 달고 있는 기존 상가들과 다름이 생기니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우리는 간판 하나만 달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많은 불법간판들에 의해 시내 건물들이 완전히 점령당했다. 4층 높이에 큼지막하게 걸린 가로형 간판, 창문 크기 만한 큰 글자에 그렸도 모자라 아예 창문을 막아버린 간판, 바다에 거의 닿을 정도인 돌출간판과 단편 셔터를 문으로 활용한 간판들. 불법 간판이라고 먼저 달기만 하면 된다. 이는 식이 되면 관라하지 않는다. <목포해양경찰서장 > 총경

시설

남북정상회담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기와 장소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도 정상회담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 접촉을 오는 13일 개성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 조사에서는 75.6%가 찬성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80.5%가 찬성하는 반응이 나왔다. 본보기 광주·전남 여론주도층인 인터넷 패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95.6%가 찬성했다.

정기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범여권은 일부를 제외하곤 환영일색이다. 한나라당은 시기와 장소 등을 들어 '대권을 이 뻐트'라 비판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에선 정치적 '뒷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상회담이 대신을 4개월여 남겨놓고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정쟁에 앞서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콜금리 전격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를 연 5.0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콜금리를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금리가 연 5%대로 올라선 것도 2001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연이은 콜금리 인상은 통화당국이 최근의 과잉 유동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과잉 유동성을 지금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예상 밖의 콜금리 인상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금증서(CD)금리가 하루 만에 0.11%나 급등, 연 5.2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과 금융비용 인상을 초래하고, 환율 하락을 부추겨 수출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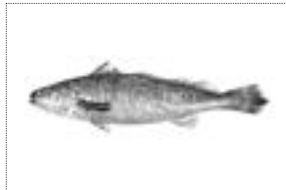
등 실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이중·삼중고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콜금리의 전격 인상이 자칫 경기 회복세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투기적 거품을 일으키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는 소비와 경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초저금리 시기에 급증한 주택담보 대출이 금리 급등으로 대거 부실화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전격 인상에 따른 시장 움직임에 예의주시해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말복(末伏)을 앞두고 견공(犬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축산물 절도사건을 분석한 결과, 삼복(三伏)이 든 7~8월엔 견공들이 가장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발중 '개 짓는 소리' 한번 없이 감쪽같이 훔쳐가는 수법이 놀랍다. 광주·전남 400여 곳의 보신탕집에서는 보날 평균 4만여 마리가 소비된다고 한다.

곱무떡(水團), 만두피 속에 고기를 저며 쥘 수각어(水角兒), 팔죽, 삼계탕도 북날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궁궐에서는 파·기장·조·배 등을 올려 종교(宗廟)에 봉헌했다. 벼슬이 높은 관리에게는 비표(水票)를 쥐 장빙고(藏氷庫)에서 얼음을 타 가게 했다. 민간에선 술과 음식을 마련, 산간계곡을 찾아 탁족(濯足)을 하면서 즐겼다. 하지만 '복날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여윈다'는 속설에 따라 물에 몸을 담그지는 않았다.

복달임



전남 해안지방에선 민어(民魚) 국으로 복달임을 했다. '복더워민어'의 사대문(四大門)에 달아매고 총채(蟲災)를 막았다'고 기록한다. '드릴 헌'(獻)은 개를 속여 넣은다는 뜻의 상형문자에서 비롯됐다. 조선시대 때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개장국을 먹으면서 맘을 내면 더위를 물리쳐 보(補)한다'고 했으며, '열양세시기'(洵陽歲時記)는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조양(助陽)한다'고 썼다. 떡가래를 꿀물에 찍어먹는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亨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502-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